

전국 유일 '하림로' 탄생

익산시, 명예도로 명명식... 중앙로 일부 구간에 부여 하림 대규모 투자·일자리 창출 보답, 지원책 검토중

익산시가 중앙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인 '하림로'를 부여함에 따라 마동에 위치한 하림지주 본사 사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 조규태 익산시의회 의장 박길연(無)하림 사장을 비롯한 시와 하림그룹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전국 유일한 '하림로'의 탄생을 축하했다.

하림그룹은 국내자산 10조 이상의 32개 대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익산시 중앙로에 본사를 자리한 기업으로서, 전북 지역내 17개 계열사와 55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하림푸드 트리아앵글 조성에 총 8,800억여원을 신규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직접 일자리 1,500여개를 창출하고 있다.

그중 지난 4월에 합영을 다승리 제4산업단지 3216,500여평 규모의 부지에

하림푸드 콤플렉스로 5,200억원 투자를 발표한바 있어 지역 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에 익산시는 하림의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답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하며 일자리 농업, SOC 분야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특히 시는 지난 5월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향후 5년간 익산형 일자리 4,000 개를 창출할 방침으로 양측의 계획이 시너지 있게 맞물려 서로 원활한 수요와 공급으로 발전적인 균형을 이룰 태세이다. 시는 즉석발 시장으로 진입을 노리는 하림에 원료곡 조성 및 생산 지원 방안과 함께 가공 공장이 위치한 망성면 하림마을 내 배수 불량으로 인한 도로 파손을 정비해 공장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시민들의 '일자리'로 연계됨에 따라 지역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에 대한 다방면의 지원책을 동시에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다.

김흥국 하림그룹 회장은 "고향인 익산에서 사업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는데 시에서 명예도로까지 지어주어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럽다"면서 "시민들께 하림이라는 이름에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바른기업, 윤리적인 기업으로 더욱 성장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가 중앙로 일부 구간에 명예도로명인 '하림로'를 부여함에 따라 마동에 위치한 하림지주 본사 사옥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순국선열 희생정신 기리다

군산시 현충일 추념식 거행

군산시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는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나운동 군경합동묘지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념식에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등 최소 관계자만 참석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간소화해 10시에 전곡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념

사, 현충일 노래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체크,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비치하고 참석자간 거리 두기 좌석 배치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 되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우리가 독립된 나라에서 자유와 평화,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우리 선열들의 거룩한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행복학습센터 1기 강좌 순차적 운영

군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벌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로 연기되었던 1기 동네문화가게·행복학습센터 강좌를 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동네문화가게·행복학습센터는 시민 5인 이상이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평생학습을 제공하는 배움 서비스다.

시민은 배움을 무료로 제공받고, 강사와 매니저는 일자리가 창출되며, 소상공인은 소득이 증대되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동네문화가게·행복학습센터다. 하지만 지난 1월 585강좌, 수강생 3,311명이 접수돼 강사와 매니저 사전교육까지 마쳤으나 2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잠정 연기된 상황이었다. 시는 8일부터 상기 강좌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사업장 현장 방문 및 강사, 수강생 대상 점검을 통해 강좌별 분야 및 사업장 여건,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코로나19 극복 우리 모두 힘 모으자”

윤권하 원광대병원장, '스테이 스트롱' 릴레이 캠페인 동참

지난 5일 원광대학교병원 윤권하 병원장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극복을 위한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사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점차 확산해 가고 있는 스테이스트롱(Stay Strong) 릴레이 캠페인은 기도하는 손모양을 손 씻는 그림으로 표현해 SNS에 게재하고 다음 릴레이 주자를 지목하면 된다.

이 캠페인은 외교부 직원의 아이디어로 시작해 확산되고 있는데 해외에서도 많은 호응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질병기간이 길어지면서 국내·외적으로도 각종 릴레이 캠페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 스테이스트롱 캠페인은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이겨내자는 상호 격려가 담긴 의미를 담고 있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으로부터 지목을 받은 윤권하 원광대병원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개인들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 코로나19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원광대학교병원도 여러분의 건강과 청정 전복을 지키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굳은 의지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면 코로나19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원광대학교병원도 여러분의 건강과 청정 전복을 지키는데 앞장 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광대 박은숙 교수, 개성공단 홍보전문이사 위촉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사범대학 장 박은숙 교수가 최근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하 개성공단) 제2기 홍보전문이사로 위촉됐다.

임기 1년의 개성공단 홍보전문이사는 온·오프라인에서 개성공단 가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 활동과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 및 제도 안내, 가치 확산 및 홍보자료 공유 등을 위한 지역사회 인

적 네트워크 연계 활동을 하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이민자까지 확대 구성된 2기 홍보전문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올해는 집합교육 대신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형 인구정책 사업 발굴 2개월간 대장정 마무리

T/F팀 분야별 간담회 총 17회 아동·청소년 연금제도 등

군산시가 인구정책 사업 발굴을 위한 2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군산시 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군산시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 인구정책의 집중적 발굴을 위해 지난 2월 군산형 인구정책 T/F팀을 구성하고 중점추진 5개 분야 ①결혼·임신·출산 ②양육·보육 ③노인복지 ④일자리 ⑤정주여건)별로 4월부터 5월까지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 17회를 끝으로 마무리된 간담회는 인구정책위원회 외부 위원을 각 분야 단장으로 하고 각부서 실무진을 구성원으로 하여 현 정책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 신규

시책을 발굴하는 등 다각적인 인구정책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체 분야에서 논의된 건수는 20건이며 이 중 12건은 신규사업, 8건은 계속사업에 대한 확대 및 개선에 대해 논의됐다.

주요 논의 사항(신규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을 통합,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는 연령까지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연금제도'에 대한 인건이 도출됐다.

또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해상풍력 발전기 완공(22년)등 관광자원화에 대비하여 폐교(병도 방축도분교)등을 활용한 고군산군도 섬스타이 관광 자원화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 기존 시설, 유휴시설을 활용한 저예산·고효율 학습 카페를 통한 평생학습, 지역훈련 등 다양한 교육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원스톱 네트워크 공간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시민 배움 공동체 플랫폼 구축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 밖에도 초저출산 상황에 맞는 첫째아 출산장려금 지급액 인상, 미혼남녀 결혼 축하금 지급, 다문화가정을 위한 가족 행복지원이 양성, 부모·부부 인식개선을 위한 부모교육 통합 지원사업, 유류세 인하, 출산 후 여성들의 회복을 돕기 위한 임신부 체육시설 이용권 지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핵심 과제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의견은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의뢰, 해당 부서 검토 등을 통해 2021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게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